

월요광장

팔레스타인 인종학살에 우리도 책임이 있다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는 임시 8개월의 팔레스타인 여성 사이마 알 세이크 카난(23)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송 도중 숨었지만, 1시간 뒤 재활절개로 '기적'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지지구 한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투를 벌이던 8삭동이 카난은 태어난 지 5일만인 지난달 29일, 슬프게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며 공격을 강화해 가지지구의 유일한 발전소를 파괴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인큐베이터가 작동하지 못해 아기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이 '기적'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강 서안(west

bank)과 가지지구로 이뤄져 있습니다. 동 예루살렘과 골란고원도 팔레스타인 영토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지였던 가지지구는 가자 시를 중심으로 길이 40km, 너비 6~8km의 좁고 긴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총 면적 360km²(광주시의 70% 정도)의 좁은 땅에 18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이 중 절반 가량이 난민입니다. 이스라엘과 접한 북쪽과 동쪽은 높이 8m에 이르는 콘크리트 장벽이, 이집트와 마주하고 있는 남쪽 국경은 철조망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쪽의 지중해조차 이스라엘 군이 11km 밖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이 꼭 막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कै머런 영국 총리는 가지지구를 가리켜 '천정 없는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시작한 뒤 한 달이 채 못 되어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가 8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 피난한 사람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망자 60여 명은 대다수가 군인인 반면,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80%가 민간인이고 그 중 4분의 1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

하는 것은 이스라엘군이 '죽음의 비'로 불리는 확산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살상무기는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담고 있는 커다란 폭탄으로, 민가나 학교, 병원 등에 떨어져 터지면 하마스 등 무장 세력은 물론 노인, 여성, 어린이를 다치는 대로 죽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오직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수부대를 동원하거나, 우수한 정보 능력을 활용해 하마스 요원의 위치를 파악하여 무인기 등으로 '외과수술식 공격'(Surgical strike)을 해야 말이 되지요. 군사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할 수 없는 로켓포를 무차별 발사하는 것은 고의로 민간인을 노리는 전쟁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여성을 '잡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학살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태생의 영국 예시터 대학교 교수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공습을 가리켜 '점진적 인종학살'이라고 표현했지요.

우리는 이 '인종학살'과 무관할까요? 옐네스티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스라엘에 227억 원 상당(미화 2214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국제법은 민간인에 대한 무

차별 공격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그 주요 무기인 확산탄의 생산과 보유를 금지하는 국제협약(CCM)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옐네스티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 국민은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가지지구 민간인들의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한화와 풍산은 확산탄 제조의 주요 기업이고, 우리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한화와 풍산의 대주주입니다.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죽이라고 국민연금을 내셨습니까?

가지지구의 16세 소녀 파라 바케르 양은 지난달 29일 밤 이스라엘의 미사일 폭격 소리를 들으며 "오늘날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파라 양이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기를 기원하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파라 양이 내일 죽고, 또 다른 팔레스타인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모래 죽어 갈 것입니다.

평화의 길은 요원하지만, 우리의 한결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법조칼럼

너무 젊어서 판사가 될 수 없다?



김태균 광주지법 판사

평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닌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거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수년 전 어느 여행지에서 영국인 가족과 함께 포켓볼을 치며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공통 화제를 찾기 위해 계속 "작성 박, 맨체스터, 풋볼!!"을 외쳐댔지만, 안타깝게도 축구보다 럭비를 좋아하는 영국인 가족은 박지성을 잘 몰랐고, 저는 럭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분위기가 서먹해진 것도 잠시, 짧은 지식으로 유럽 관광지나 유명 영국 배우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군법무관인데 전역 후에 판사가 될 계

획이라고 소개를 했지요. 그런데 영국인 남편이 웃으며 한마디를 하더군요. "You are too young to be a judge."

너무 어려서 판사가 될 수 없다? 판사가 되기에는 너무 어려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고, 거짓말쟁이로 의심받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한참이나 한국과 영국의 사법제도의 차이에 관해 열변을 토했지요. 당연히 우리의 대화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되었고, 그즈음 영국인 가족과는 이별을 했습니다.

그제야 어느 영화에선가 가발을 쓰고 근엄하게 법대에 앉아 있는 노년의 판사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영국인 부부에게는 서론도 되지 않았던 동양의 남자가 판사가 된다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질 만도 했겠지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을 마치면 바로 판사가 된다는 것은 영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우리만의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로스쿨이 올해 6년째가 되었습니다. 로스쿨의 시작과 함께 판사의 임용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선발하던 것을, 일정기간 검사나 변호사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이면 경력 3년차가 되는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들이 판사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판사는 40대 이상으로 과거에 비해서 고령화될 것입니다.

법조 경력의 대부분을 법대에서 보내온 우리나라 판사들은 법관으로서의 오랜 경험만큼이나 그 업무능력과 숙련도에서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별로 공감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살인적인 업무량에도 공평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서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세계 2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의 고령화는 반가운 면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주심판사는 30대 초반, 심지어 20대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

다. 그런 경우에 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불평거리 중 하나는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 판사가 될 알겠냐는 것이겠지요. 70대 부부의 황혼 이혼 사건을 30대 초반의 미혼 판사가 담당했을 때에는 터할 것이 고요. 저 역시 재판을 하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세상물정 모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비난하는 분위기도 문제지만, 법정에서 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저 역시 책임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재판은 공정한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와 국민의 납득과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와 경력만으로 공정하고 바른 재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나이만큼 인격이 성숙해야 하고, 경력만큼 전문성이 있고 세상물정에도 밝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판사를 임용할 수 있는 노력을 국민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사법권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옴부즈맨 칼럼

지역 대표언론의 주도적 역할 기대한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사무처장

요즘 SNS의 폭발적인 성장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키피디아(Wikipedia, 2012)는 SNS를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호적 관계망이나 교호적 관계를 구축해 주고 보여 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오프라인이나 지면을 통했던 기존 활동들이 이제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책을 들춰보거나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PC나 내 손안의 핸드폰으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편리한 세상이 된 것은 틀림없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볼과 몇 분만에 전 세계 지구인들이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고의 선물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신속함에 비해 자세한 내용은 없고 제목과 머릿글만 난무하는, 선정적이지만 실상 내용은 별 것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전적인 동의가 아닌, 불신 속의 세상 엿보기가 많은 실정이다.

신문도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신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와 다양한 의견의 개진,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 특히 전문เจาะ린 소견과 심층 취재 그리고 지역의 소식들이 많이 배제되고 걸려진 사항들이 보도되고 알려지다 보니 그에 따른 단점들도 부각이 되고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중앙의 소식들로 덮여지고, 지역의 행사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 사고 소식이 도배되어진다. 그러다보니 지역은 없고 항상 중앙의 소식이 모두의 소식이 되어버리니 지역은 갈수록 협소화되고 배제되어 간다. 인구가 행정이 중앙에 집중

되다 보니 언론도 늘 중앙지향적이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지역 언론의 성장이 답이다.

광주는 타 도시에 비해 언론사가 많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지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경쟁조차 힘든 영세 언론기관의 난립은 지역 신문 전반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탄탄한 경영구조와 중심을 잡고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언론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러한 역할을 광주일보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

6·4 지방선거는 지났지만 광주는 여전히 숙제들을 안고 있다. 갈수록 고립화되어져 가고 있는 광주·전남은 상생도모를 통해 동반성장을 예고하고 있고 지역의 정치구도 역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고 지역 내에 갈라진 민심은 골이 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찬·반 의견 개진과 전문가들의 다양

한 발전 방안, 지역 주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담아 민의가 향하고 있는 생각들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문화전당 건립, KTX 개통,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나주 혁신도시 등 외적인 성장요인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제 광주·전남은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 스스로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일보가 이에 발맞추어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라고 희망한다.

지난 세월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해 온 광주일보는 지역민들의 벗이자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색과 대안 제시 그리고 머리로 하는 취재가 아닌 발로 뛰는 열정으로 생생하고 심도 있는 기사를 전달함으로써 가장 모범이 되는 지방지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이것은 광주 시민들의 바람이자 지역 언론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社說

몰려오는 잇단 태풍...재해 철저히 대비를

태풍 '나크리'(NAKRI)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3일 오후부터 나크리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태풍 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또 다른 태풍 '할롱'(HALONG)이 북상 중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2일부터 3일 오후 3시까지 광주·전남에는 광양 백운산 459mm를 최고로 보성 377mm, 고흥 368mm, 순천 332mm, 장흥 259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보성군 검백면에서는 주택 11호가 침수됐고, 여수와 장흥·완도의 도로 11곳과 여항시설 15곳이 유실됐다. 폭우에 강풍까지 불면서 보성과 순천·화순 등지 434ha에서는 수확을 앞둔 복숭아 등의 낙과 피해가 잇따랐다. 해남 등지의 농경지 3293ha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비닐하우스 10개 동

과 축사 2개 동이 파손되기도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나크리의 영향권에 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태풍 '할롱'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관에서 일반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 중인 할롱이 아직은 '소형'이지만,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이후 이번 주말께 남해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전남은 2년 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잇따라 강타하면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산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주·전남 지역 재해 취약지는 125곳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끼친 태풍은 대부분 늦여름에서 초가를 사이에 발생했다. 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국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 정부·여당이 화답할 차례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이철형 후보를 선택한 것은 한국 정치의 일대 사건이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지역구도를 아권의 텃밭인 전남에서부터 허물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가 지난 6·4 대구시장 선거에서 남지 못한 지역주의의 벽을 이 당선자가 마침내 뛰어넘은 것이다. 특히 이 후보의 당선은 호남에서 26년 만에 새누리당 계열 간판으로 첫 지역국회의원이 탄생했다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한국 정치의 흐름을 바꿀돌을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그 흐름은 물꼬를 튼 호남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선 '깃발만 꽃으면 당선'이라는 퇴행적 사고부터 고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또 그동안 정치적 존재감과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지역 국회의원들을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랜 소외와 홀대를 받아온 호남

인들이 지역주의 종식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러나 손뼉은 두 손이 마주쳐야 하듯 영남도 화답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이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더 이상의 의도적인 호남 차별은 안 된다는 얘기다. 이번 박 정부 2기 내각을 바더라도 총리를 포함한 18명의 장관과 20여 차관급 인사 중 호남 출신은 각각 1명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예산에 대한 호남 소외도 뚜렷하다. 금년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중 전남의 반영률은 5%, 광주는 40%선인데 반해 대구와 경북은 각각 88.36%, 63.45%에 달한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한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주저해선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도 호남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게 곧 국민 화합과 대통합의 지름길이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첩경이 될 것이다.

無等鼓

1998년 8월초의 일이다. '일본 임진왜란 연구회' 회원 10여명과 동행해 해남·진도 등지의 임진왜란 유적지를 돌아본 적이 있다. 대학 교수와 고교 역사교사, 기업인, 주부 등으로 구성된 회원들은 수년간 임진왜란과 관련된 스토리를 계속해오다 마침내 한국의 관련 유적지 답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한 충무사를 찾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재난이 있을 때

수습해준 진도 군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당시 이들의 답사를 지켜보며 개인적으로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있고 지내는 400여 년 전의 까마득한 역사현장을 찾아 전쟁이 남긴 역사의 아픈 교훈을 되새기고,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들의 '진지한' 자세 때문이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의 인기가 뜨겁다. 1597년(선조 30

이순신 열풍

년) 경남 거제 칠천량은 명량대첩비(보물 제503호)를 꼼꼼히 살

해전에서 전멸한 수군이 불과 두달 뒤 기어 12척의 판옥선만

해 남 우수영에 우뚝 세워진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다)'비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의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보며 놀라워 했다. 이들의 마지막 발견음이 머무른 곳은 진도군 고군면 내동리에 자리한 왜덕산(倭德山) 자락의 공동 묘지. '왜군에게 덕을 베풀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곳은 주민들이 명량해전 당시 전사한 일본 수군 100여 구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답사를 마친 이들은 조상의 시신을

으로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이용할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극적으로 물리치는 내용이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 뿐만 아니라 풍전동화와 같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민초(民草)들의 한마음으로 일궈낸 승리이기도 하다.

충무공을 평생 연구해온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순신은 완벽한 인간, 공직자의 사표(師表), 가장 성공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진정한 리더의 부재가 아쉽지만 한 요점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42	체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